

2026년이 밝아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빔어주시는 새해입니다. 전 우주를 돌리시고,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돌려 시간을 지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해에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視線)을 두어야 할까요? **국제정치, 전쟁, 주식시장** 같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나의 몸 나의 육체 나의 명성**과 같은 곳에 시선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 I. 성경이 제시(提示)해주시는 시선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6,9절에서 <두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1)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이다. 인생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유한한 인간임을 알라는 것이다.

2) 9절에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분, 통치자,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연장과 같습니다.

롬 11:2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Behold therefore the goodness and severity of God(KJV).

하나님의 두 가지 반대적인 성향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정반대적인 성품으로 보입니다.

마치 요한일서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도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 II.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 메시지를 준 것인지 그 상황을 살펴봅시다.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이 말을 받는 것은, 로마교회의 이방인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13절 후반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사역을 하는 사도로 꼭 필요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여야 하는 상황(狀況)은 무엇입니까?

본문 18-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지랑하지 말라. 지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자랑한다. 높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설명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자랑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출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뭘 상황인가요?

지금 로마서이죠. 로마에 사는 이방인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로마교회를 꼭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유대인추방령을 내렸을 때에, 로마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꼭 찬 유대인들보다 자유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입니다(뒤에서 바울은 이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볼 때, 유대교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로마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래로 보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입장에선, 이방인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월감이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이 우월감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방법은, 거룩함과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합니다.

1) 16절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그 가지중의 일부가 꺾였다할지라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룩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거룩의 뿌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2) 17-19절은, 이것을 접붙임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17.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지광하지 말라 지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바울은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 참감람나무에 접(接)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진액(津液)을 받아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의 진액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의 잎이 태양을 받아 양분을 만들고 뿌리로 내려보내는 광합성(Photo synthesis) 작용의 기능도 있겠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傳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의 잘못이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참감람나무를 통해서 인류 구원(人類救援)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4-5절에서 이렇게 말한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가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신자들이 오판(誤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20-21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방인 접붙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믿지않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부심과 자랑, 교만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지가 일부 잘려나간 것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교만스럽게 생각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이 있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만일 이방인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잘라져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2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 III.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두가지입니다.

#### 1. 하나님의 인자하심 (the goodness, the kindness (kjv. niv))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말한 곳이 두 곳입니다. 2:4절과 11:22절입니다.

로마서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蔑視)하느냐**”

\* 이 구절에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개(悔改)의 관점(觀點)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회개게 하는 일(구원케 하는 일)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격(感激)을 가져옵니다.

아 그랬었군요.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노력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the goodness, the kindness)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仁慈)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있다는 말이, 무엇인지요. 머물러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답을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蔑視)하느냐**”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있지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멸시(蔑視), 조롱(嘲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悔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5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네 고집(固執)과 회개(悔改)하지 아니한 마음을 떠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지않는 자에게 오래참으시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讚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36:7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2:8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136: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 2.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severity 씨배리티 of God(kjv): sternness of God(niv)

22-2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준엄(峻嚴)'의 한자 뜻은, '높을 준(峻)'과 '엄할 엄(嚴)'으로, '산이 높고 험준하듯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준엄의 헬라어는 (Ἀποτομία, apotomia)로 '무자비함, 단호함, 엄격함,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잘려나가는 '엄격한 조치'를 나타냅니다.

1)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2)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1:23-24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한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준엄한 심판이고, 다른 한쪽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인자(자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넘어지는 자들”은 단순히 일시적 연약함으로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거나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표현으로, 불신앙 가운데 고집스럽게 머무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자리에서 잘라 내시는 단호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만과 불신앙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실제 역사 속에서 “꺾어 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 신자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 믿을 때 한 번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는 표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을 버리고 교만과 불신앙에 빠지면, 동일하게 잘려 나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지위나 과거의 경험이 자동 보장을 주지 않고, 현재의 믿음과 겸손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인해 감사하여야 합니다.

욥기 37:21-24절에서 엘리후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아지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때에는 공창의 광명(해/빛)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맑아지고 밝은 빛이 드러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22절에서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고 합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그 위엄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엄숙하며,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37:23), 인간이 그 하나님을 함부로 따져 묻기보다 경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43절의 긴 노래입니다. 1-6절입니다.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 그는 반석(磐石)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完全)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定義)롭고 진실(眞實)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公義)로우시고 바르시도다.
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惡)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흙이 있고 뼈떨어진 세대로다.
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報答)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 III.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 다시 접붙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엄위하심>입니다. 이 둘 중의 하나도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중 어느 것이 주도적(主導的)인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것의 단서를 23-24절에서 찾아 보려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기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잘려나간 유대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 믿으면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이런말이 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질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돌감람나무를 가지고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로 만드시는 작농가 하나님이신데, 잘라졌던 참감람나무가지를 가지고 원래의 가지에 다시 접붙히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말씀을 전체로 보면 보이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추세입니다.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인자하심으로 시작해서-엄위하심으로 가고-마지 다시 인자하심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의 하나님이 더 주도적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합니다.

시편 23편은 목자(牧者)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목자의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목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않도록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심으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하십니다

맺음: 우리는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년벽두에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새로울 것이 없는 한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불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13:1)”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접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복음성가 <시선>

내게로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 기도합니다.

우리로 믿음안에 거하는 한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인자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해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 아멘